

정유재란 초기 조선의 수군정책과 부산근해 해전

제 장 명

(해군총무공리더십센터)

目 次

- I. 서 언
- II. 정유재란 초기 조선의 수군운영책
- III. 부산근해 해전의 경과 및 결과
- IV. 부산근해 해전의 의미와 영향
- V. 결 언

I. 서 언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부산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일본군의 조선침략에의 교두보역할을 담당한 곳이다. 그리고 침략 후에는 일본군의 조선주둔 근거지로서 계속 활용되었고, 강화기 동안에도 조선과 일본 사이를 왕래하는 데 관문역할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정유재란기에는 일본군의 재침입이 이루어진 곳으로 그 역할은 임진왜란 초기와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일본군이 재침한 정유재란 초기 조선 조정의 수군정책과 그 결과 벌어진 부산근해 해전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것이 정유재란기의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부산근해 해전이란 정유재란이 발발한 후 통제사가 원균으로 교체된 이후부터 칠천량해전 이전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동남부지역의 바다에서 벌어진 전투로 정의한다.

임진왜란 시기 부산근해 해전에 관한 기존연구는 임진왜란초기의 부산포해전 연구와 정유재란 초기의 칠천량해전 연구로 대별된다. 이중 부산포해전에 관한 연구는 임진왜란 해전사연구와 이순신 연구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왔다.¹⁾ 그리고 개별 논문 형태의 부산포해전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김종기의 연구를 필두로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²⁾

1) 기존 임진왜란 해전 관련 대부분의 단행본에서는 부산포해전에 관해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형석, 『임진전란사』 중권,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pp.508-514 ; 해군대학, 『한국해전사』 pp.151-155 ;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pp.101-105.

2) 김종기, 「부산포해전」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군사연구실, 1993 ; 김강식,

한편 정유재란기의 부산근해 해전에 관한 연구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칠천량해전 연구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부산포 해전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연구 성과에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칠천량해전에 관한 연구 성과 중 개별논문으로 발표된 것으로는 이민웅의 연구를 비롯하여 몇 편이 있다.³⁾

그러나 이들 칠천량해전에 관한 연구 성과는 칠천량이라는 특정 해전지역을 다루었거나 원균이 지휘한 조선수군의 패전 원인에 집중된 면이 강하다. 다시 말해 기존 학자들의 부산근해 해전에 관한 시각은 결국 패전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집중된 면이 있었다. 나아가 조선조정과 이순신, 원균의 3자 갈등관계를 부각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칠천량해전이 있기 전에 있었던 수차례의 해전은 개별 해전별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칠천량해전의 배경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유재란 초기 조정의 수군정책을 분석하여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당시 부산근해 해전이 칠천량해전의 패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 해전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부산근해 해전의 전황과 의미에 대해서 전술적인 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해전사 연구의 한 부분을 보충하는 계기로도 삼고자 하였다.

요컨대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부산 근해 해전에 대해 의미와 위상을 새롭게 부여하고 당시 조선수군의 부산원정작전을 올바

「임진왜란 시기의 부산포해전과 의미」 『부대사학』 제30집, 2006

3) 김일룡, 「전적지로 통해 본 칠천량해전」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제8회 수상자료집, 1992 ; 이상훈, 「칠천량해전」 『93-2 남해안 임란유적지의 실증적 분석』 해군사관학교 충무공해전유물발굴단, 1993 ; 이민웅, 「정유재란기 칠천량해전의 배경과 원균함대의 패전경위」 『한국문화』 2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2.

르게 이해하는 한 방안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의 결과 부산근해해전의 영향에 의해 발생한 칠천량해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정유재란 초기 조선의 수군운용책

1. 일본의 재침과 조정의 대응태세

1596년 9월에 임진왜란 강화회담은 결렬되었고 그 결과 일본이 재침할 것이 확실하다고 跟隨사신으로 일본에 갔던 황신이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접한 조선조정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를테면 비변사는 먼저 奮義復讐軍을 전국적으로 조직케 하는 한편 한양에 와 있던 도체찰사 이원익을 하3도로 급히 보내 도원수 권을 이하 조선군을 총독케 하였다. 동시에 일선 조선군의 지휘관도 주로 실전경험이 풍부한 의병장 출신의 곽재우·홍계남·고언백 등과 관군출신의 정기룡·한명련·이시발·박명현 등으로 보강케 하였다.⁴⁾

아울러 조선 조정에서는 같은 해 11월부터 일본이 재침할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주로 유성룡을 필두로 한 남인들의 전략을 채택하는 형태였다. 이를테면 일본이 침입해 올 때 조선의 방어태세가 부실하므로 명나라 조정에 급히 구원군을 요청하는 한편 산성중심의 방어 및 淸野戰을 일본의 재침에 대비하는 조정의 기본전략으로 확정하였다. 청야전법을 통해 적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어 부산지역에 묶어둘 수

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9(조선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1995, 110쪽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 후 조선군은 해주전투처럼 요해지에 응거하여 힘을 비축하면서 지킬 경우 일본군은 군량부족으로 지칠 것이고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일본군을 공격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⁵⁾

그러나 당시 일본군의 공격 예상지역은 전라도로 예견됨으로써 선조는 연해 방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덕형은 산성보다는 수전이 더욱 중요하므로 수군을 신척하여 적의 공격로를 봉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여 선조의 동의를 얻었다.⁶⁾

아울러 이덕형은 일본의 戰船出陣이 家戶단위로 구성되기 때문에 늘 한꺼번에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조선의 수군은 튼튼하기 때문에 일본의 전선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보면서 문제는 전선이 아니라 이를 운용할 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는 연해안의 수군자원을 公賤·私賤을 막론하고 본역을 면제하고 수군에 전속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수군이 이를 위해 한산도와 장문포를 굳게 지켜야 하며 이원익을 남방에 내려 보내 이 임무를 수행하기를 건의했다.

이와 같이 조정에서 수군운용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일본군의 정세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입수되었다. 즉 1월 11일에 要時羅가 경상우병사 김응서에게 小西行長의 뜻이라면서 서장을 전달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이를테면 加藤清正이 7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4일에 이미 대마도에 도착해 있는데 순풍이 불면 곧 바다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나오기 전에

5) 『宣祖實錄』 권82, 29년 11월 己亥

6) 『宣祖實錄』 권82, 29년 11월 己亥

예방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1월 11일 전후로 해상상태가 양호하니 조선수군이 속히 거제도에 나아가 정박하였다가 淸正이 바다를 건너는 날을 엿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범선은 풍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만 하였다. 먼저 東風이 세게 불면 거제도로 향할 것이니 거제도에 주둔하고 있는 조선수군이 이를 공격하기가 쉬울 것이지만 만약 正東風이 불면 곧바로 機張이나 西生浦로 향하게 되므로 거제도와 거리가 매우 멀어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戰艦 50척을 급히 기장 지경에다 정박시켰다가 경상좌도 수군과 합세, 結陣하고 혹 5~6척이 부산의 서로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왕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加藤淸正의 도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었다.⁷⁾

이러한 내용을 김응서가 보고하자 선조는 황신을 보내어 이순신에게 비밀히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바닷길이 험난하고 왜적이 필시 복병을 설치하고 기다릴 것이므로 전함을 많이 출동시키면 적이 알게 될 것이고, 적게 출동하면 도리어 습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행하지 않았다.⁸⁾

그런데 이러한 장계가 올라온 지 이틀 후인 1월 13일에 4도 도체찰사 이원익은 加藤淸正이 전선 2백여 척으로 다대포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⁹⁾ 그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경상도 제진위무사 황신은 ‘1월 12일에 加藤淸正의 배 280척이 바다를 건너 서생포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¹⁰⁾ 이러

7)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庚戌

8) 『亂中雜錄』 선조 30년 2월 1일조 ; 『燃藜室記述』 권17, 「宣祖朝故事本末」 ‘丁酉倭寇再出’

9)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壬子

한 보고를 접한 조정에서는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각도에 연락하여 요해처를 막아 변란을 대비하고 喪을 당한 武臣들도 기복시켜 경성의 시위와 남쪽의 긴요한 방어처에 보내도록 조치하였다.¹¹⁾

일본군의 선발대가 부산에 도착함으로써 전쟁이 재발했다고 판단한 선조는 일본의 침략에 우리나라의 능력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며, 잘못되면 후일 명나라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요지의 咨文을 작성하여 명나라에 급히 구원을 요청토록 하였다.¹²⁾ 비변사에서 일본이 경성을 침입해 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죽령과 조령, 추풍령의 방어를 충실히 할 계획을 선조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았다.¹³⁾

한편으로 선조는 대신 및 비변사 유사 당상과의 인견 자리에서 이번 加藤清正의 부산 상륙에 대해 매우 아쉬운 점을 피력하면서 통제사 이순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명하였다. 특히 선조는 다음과 같이 절망적인 심정을 피력하면서 수군의 부산근해 진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대한 질책을 하였다.

“이번에 이순신에게 어찌 청정의 목을 베라고 바란 것이겠는가. 단지 배로 시위하며 해상을 순회하라는 것뿐이었는데 끝내 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제 도체찰사의 장계를 보니 시위할 약속이 갖추어 졌다고 한다.” 하고 상이 한참동안 嗟歎하고는 길게 한숨지으며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이제 끝

10)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癸丑

11)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壬子

12)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癸丑

13)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癸丑

났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¹⁴⁾

위의 기록에서 선조의 심정을 살펴보면 要時羅와 小西行長의 반간계에 의한 제보를 믿고 그대로 실행했더라면 더 이상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다시 전쟁이 발발했다는 데 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것이다. 선조는 이러한 결과의 중심에 통제사 이순신이 있었다고 보면서 이순신의 행동을 아쉬워하였고 윤두수와 김응남 등은 이순신을 꺾어버리는 언급을 하여 선조의 입장에 동의하였다. 동시에 이산해 등은 원군의 능력이 뛰어난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점에서 경상도 위무사 황신은 장계를 통해서 加藤清正이 들어온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였다. 즉 1월 12일에 加藤清正의 관하 왜선 1백 50여척이 서생포에 정박했고, 13일에는 加藤清正이 거느리는 관하의 왜선 1백 30여 척도 바다를 건넜는데, 해상상대가 좋지 못해 가덕도에 정박했다가 14일에 다대포로 옮겨 정박해 있는데, 곧 서생포로 향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小西行長이 이번 加藤清正의 도해를 차단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조선의 일은 매양 그렇다는 식으로 한탄하였다. 여기에 대해 도원수 권율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¹⁵⁾ 이러한 시점에서 황신은 적을 공격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테면 加藤清正이 비록 상륙했지만 아직까지 근거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수륙군을 편성하여 공격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¹⁶⁾

14)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甲寅

15)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甲寅

16)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甲寅

그러나 적선이 2백여 척이라는 점에서 조선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울산군수 김태허는 일본군의 선박이 그 포구 2마장 남짓까지 빈틈없이 정박하여 5백여 척이나 된다고 보고하였다.¹⁷⁾

이러한 시점에서 조정에서는 수군을 어떻게 강화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선조의 주재 하에 대신과 유사당상이 모여 그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때 주 안건은 통제사를 교체하는 데에 집중하였는데, 특히 선조는 이순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었다. 그러한 인식은 다음의 언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 진공 거부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부산 왜영 방화사건에 대한 허위보고¹⁸⁾까지 포함하여 거론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계미년 이래 사람들이 모두 거짓되다고 하였다. 이번에 비변사가 ‘제장과 수령들이 호령을 듣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비변사가 그들을 옹호해주기 때문이다. 중국 장수들이 못하는 것이 없이 조정을 속이고 있는데, 이런 습성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두 답습하고 있다. 이순신이 부산왜영을 불태웠다고 조정에 속여 보고하였는데, 영상이 이 자리에 있지만 반드시 그랬을 이치가 없다. 지금 비록 그의 손으로 청정의 목을 베어오더라도 결코 그 죄는 용서해 줄 수 없다.”¹⁹⁾

17)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丁巳

18) 부산왜영 방화사건은 1596년 12월 12일에 부산의 왜영에 불이 나서 1천여 가옥과 미곡창고·군기 등이 모두 타버린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에 대해 이순신은 1597년 1월 1일 장계에 자신의 부하들이 실행한 것이라며 군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 김신국이 올린 장계에는 이와 다르게 도체찰사 휘하의 정희현과 수군 허수석 등이 수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실행한 것이라고 하였다(『宣祖實錄』 권83, 29년 12월 辛巳; 같은 책 권84, 30년 1월 壬辰·癸巳). 이에 대해 선조는 이순신의 보고를 허위보고로 단정하였다.

이렇게 볼 때 선조가 통제사 이순신을 교체하려는 까닭은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이 이순신의 소극적 대처로 말미암아 발생했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선조는 이번 부산 앞 바다로 출전하지 않은 데에 따른 문책뿐만 아니라 이전의 부산왜영 방화 사건에 대한 허위보고까지 거론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순신의 후임으로는 내심 원균을 낙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균을 삼도수군통제사로 전격 교체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만큼 조정의 수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고 이순신의 능력을 소홀히 취급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장차 수군의 작전 통제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선조는 이순신의 죄상을 강조하면서 체직시킬 뜻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의사에 동의한 대표적인 인물은 윤두수였다. 그는 이번 이순신의 부산 진공 거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 체직시켜야 한다는 뜻에 동조하였다. 그런데 이때 유성룡은 이순신이 한산도에만 머물면서 별다른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들을 요격하지 않은 데에 대해 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휘관을 교체하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변란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순신의 입장을 완곡히 두둔하였다.²⁰⁾ 그러자 선조는 조산만호 시절에 있었던 사례²¹⁾를 들면서 남을 속이는 이순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의

19)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戊午

20)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戊午

21) 이것은 선조가 위의 책 같은 조에서 언급한 것이다. 즉, 이순신이 조산만호로 있을 때 김경눌 역시 녹둔도에 둔전하는 일로 마침 그곳에 있었는데, 이순신과

견을 피력하였다.

이때 이정형은 이순신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당시의 수군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다.

“이순신이 ‘거제도에 들어가 지키면 좋은 줄은 알지만, 한산도는 선박을 감출 수 있는데다가 적들이 친심을 알 수 없고, 거제도는 그 만이 비록 넓기는 하나 선박을 감출 곳이 없을뿐더러 또 건너편 안골의 적과 상대하고 있어 들어가 지키기에는 어렵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합당한 듯합니다.”²²⁾

이것은 곧 이순신이 이번 부산 앞바다에서 적을 요격하지 못한 것은 결국 거제도에 전진 배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순신의 입장에서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원균의 인품이 매우 포악하여 경상도가 판탕된 것이 모두 원균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그러자 김응남은 원균의 인품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를 수군에 기용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선조는 좌부승지 유영순에게 비망기로 전교하면서 원균을 경상우도 절도사 겸 경상도 통제사로 임명하였다.²³⁾ 이것은 삼도수군통제사인 이순신의 직책을 그대로 둔 가운데 이순신에게는 전라도와 충청도 수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원균에게는 경상도 수군만 통제하는 권한을 준

김경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 이순신이 밤중에 胡人 하나를 잡아 김경눌을 속이니, 김경눌은 바지만 입고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22)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戊午

23)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己未

것이였다.

한편 수군이 부산 앞바다에서 요격하지 않은 일에 대해 명의 사신 沈惟敬은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즉 그는 비변사 관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일본군 도해 차단작전’이 성사되기 어려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적선이 東風을 타고 나오는데 이쪽에서 적을 향하려면 西風을 타야하는데 逆順이 달라 서로 맞서기 어려운 형세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였다.²⁴⁾

이러한 수군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조선 조정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일본군의 도해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제사 이순신에게 물은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그해 2월 6일에는 이순신의 拿鞠을 명하였다.²⁵⁾ 그러는 한편으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상좌도의 수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上道の 여러 연해안 고을에서 전선을 제작하고 격군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도권 연안 방위를 위해 황해도에서도 관옥선과 거북선을 많이 제작하도록 조치하였다.²⁶⁾

한편으로 예조정랑 정엽을 告急使로 삼아 총독과 경략의 군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 요지는 일본군이 바다를 건너와 경상좌도와 우도연안의 요해지에 웅거하면서 군량과 병력 등을 실은 배가 부단히 바다를 건너오는 것은 조선뿐만 아니라 명나라를 침공하려는 의도가 보이므로 전투력이 강한 명의 南兵과 이를 지탱할 군량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²⁷⁾

24)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己未

25) 『宣祖實錄』 권85, 30년 2월 丁卯

26) 『宣祖實錄』 권85, 30년 2월 戊辰

이와 같이 조정에서는 한편으로는 통제사의 교체를 단행하였고 한편으로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자체방어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조선 조정의 수군정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일본군이 도해하여 상륙한 부산 지역과 경상도 연해안에서는 도원수와 통제사, 그리고 병마절도사간의 협의를 통해 대일본군 공격 전략이 수립되고 있었다.

2. 부산진공 작전과 통제사 교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통제사 교체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要時羅의 일본군 정세에 대한 보고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당시 일본군 수뇌부 인물 중 小西行長과 加藤清正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정유재란의 발발이 加藤清正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지 小西行長の 의사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전달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일본군의 재침은 加藤清正 혼자만의 결심에 달린 것이므로 加藤清正가 도해하는 것을 조선수군이 차단한다면 새로운 전쟁 발발은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한 데에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加藤清正가 지휘한 선발대가 부산 다대포에 상륙함으로써 정유재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후 일본군의 후속 부대가 계속 도해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에는 일본군이 여러 곳에 주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597년 2월 현재 일본군 주력이 있는 서평포와 죽도를 제외하고도 부산에는 일본군 7천여 명과 전선 70여 척, 안골포의 일본군은 1천여 명

27) 『宣祖實錄』 권85, 30년 2월 己卯

과 40여 척, 가덕도는 5백여 명과 20여 척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런데 要時羅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는 小西行長의 加藤清正 제거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경상우병사 김응서는 要時羅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기에 이러한 사실들이 설득력 있게 전달된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경상우병사의 첩보제공과 도원수 권율의 지시, 통제사 이순신의 협조가 어우러진 가운데 加藤清正이 이끄는 일본군을 섬멸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것이다.

그 중 첫 번째 시도가 2월 10일 전후에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2월 9일에 경상우병사 김응서는 휘하 宋忠仁·豆毛岳·金牙同 등을 부산포에 주둔하고 있던 小西行長에게 보내서 밀약을 하였다. 그 내용은 加藤清正을 부산으로 유인해 小西行長 측과 조선군이 동시에 참살하거나, 加藤清正이 오지 않을 경우 小西行長이 加藤清正을 방문하여 얘기할 때를 틈타 조선군이 공격하는 작전이었다. 이때 수군들은 부산에서 서쪽으로 10리 가량 떨어진 초량항에 모여 대총통 한 발을 방포한 후에 머물기로 한다는 것이었다.²⁸⁾

이러한 계획을 세운 가운데 2월 10일 아침 해뜰 무렵에 조선수군은 전선 63척으로 장문포를 떠나 미시(오후 2시경)에 부산 앞바다로 나가 정박하였다. 이때 부산에 있던 일본군이 병력 3백여 명을 내어 저항하려고 하여 날이 저물 무렵에 절영도로 후퇴하여 정박하자 일본군들도 퇴진하였다. 이 전투에서는 일본군의 저항이 완강하여 조선수군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이날 저녁 要時羅는 경상우병사에게 와서 小西行長의 뜻이라

28) 『宣祖實錄』 권85, 30년 2월 辛巳

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를테면 小西行長이 다른 왜장들에게 말하길 “조선은 용병술도 익숙해 있고 전함도 많이 준비한 상태라 이기기가 어렵다. 이달 8~10일 사이에 1천여 척의 전선으로 부산 앞 바다로 와서 양도를 끊으려 할 텐데 조선의 노여움을 도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조선수군의 전선을 보니 숫자도 적고 보기에 엄속하지도 못하여 매우 난처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루 이틀 내에 전함을 더 모아 성대한 위세를 보여 加藤清正에게 조선군과 싸우도록 독려하면 그때 清正이 나올 것이므로 이를 격퇴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경상우병사 김응서는 더 많은 전선이 모일 기약도 없고 형세도 미치지 못하는데 외로운 군사로 적이 있는 곳에 오래 머문다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비록 加藤清正을 유인해낸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불순하고 清正이 있는 서생포 앞바다는 파도가 험해 돌아와 정박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수군이 다 모인 뒤에 도모하려고 12일에 회군하였다.

조선수군이 12일에 웅천 원포로 퇴진하기 위해 가덕도 동쪽 바다에 도착하여 급수하려고 수졸 몇 명이 가덕도에 내렸을 때 일본군이 숨어서 엿보고 있다가 초동 1명을 쳐서 죽이고 5명을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²⁹⁾

가덕도에서 조선수군이 피납된 데 대해 이순신은 “가덕도의 왜적이 우리 초동을 죽였으니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하면서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일본군은 육지의 험한 곳에 들어가 숨어서

29) 『宣祖實錄』 권85, 30년 3월 庚戌

방포하였는데, 이때 조선수군의 선봉은 안골포 만호 우수였다. 그는 경상우병사 김응서가 거느리고 있던 항왜 17명을 자신의 배에 옮겨 태워 적진 앞으로 돌진하여 대포를 무수히 발사하여 왜적 10여 명을 죽였고, 우수 역시 왜적 1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 후 날이 저물 무렵에 영등포 앞바다에 돌아와 정박하였다.

다음날 14일 미시(오후 2시경) 무렵에 要時羅가 안골포로부터 조선수군의 진영으로 와서 전달하기를 ‘일본 장수들은 중국조정 의 회답이 올 때까지 경상우도지역의 여러 고을을 침범하지 않기로 했으며, 어제 상호간의 교전 시 잡아간 조선인들도 돌려 보내기로 하였다’고 전달하였다. 그러면서 비밀히 말하기를, 3월 초승에 일본군이 호남과 영남 두 도를 먼저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小西行長을 비롯한 일본군의 다른 장수들은 협력하여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³⁰⁾

이후 조선수군은 전선의 수가 단약하여 서생포로 진격하여 정박할 수도 없고 이미 淸正이 출전할 의도도 없는 것 같으므로 15, 16일경에 퇴진하였다.

이와 같이 도원수 권율의 장계에 나타난 김응서의 보고를 통해 볼 때 경상우병사와 통제사 이순신은 상호 협조하여 부산으로 출진하였고, 그러한 작전의 배경에는 要時羅를 통해 전달받은 小西行長의 의도를 수용하여 실행에 옮기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산진공작전의 경과 및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1>

30) 『宣祖實錄』 권85, 30년 2월 甲申

과 같다.

〈표 1〉 부산진공작전의 결과

교전일자	교전장소	참전세력		전과	피해
		조선	일본		
1597.2.10	부산포구 (정박)	전선 63척	군사 300여 명	일본군 다수 사살	조선수군 일부 전사
1597.2.12	가덕도 (동쪽해안)	상동	군사 다수	일본군 11명 사살	조선수군 6명 피납

이러한 보고를 받은 선조는 小西行長の 행동에 대해 “처음에 청정을 바다로 나오게 하려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자 중지하고 시행하지 않는 것 뿐”이라면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봐서 小西行長과 加藤清正 사이가 틈이 벌어진 것은 충분히 신뢰가 가는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동지 노직은 小西行長이 비록 조선과 힘을 합쳐 加藤正正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끝내 아무 일도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며 이를 경계하였다.³¹⁾

한편 이번의 도원수 주도 하에 경상우병사와 통제사가 부산지역으로 함대를 출동시킨 것은 4도 도체찰사 이원익이 전혀 알지 못한 채 행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원수 권율은 사전에 도체찰사 이원익의 절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원익이 이 문제로 몇 번이나 만나자고 알렸음에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군령권 행사에 매우 중대한 문제였으므로 조정에서는 도원수 권율을 질책하면서 추후 재발시 군율을 적용할 것임을 알려주었다.³²⁾

31) 『宣祖實錄』 권85, 30년 2월 丙戌

32) 『宣祖實錄』 권85, 30년 2월 丙戌

부산 진공작전을 마치고 통제영에 돌아간 이순신은 2월 26일자로 한산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의금부 관원에 의해 압송되어 한성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는 원균이 통제사로 임명되었다.

한편 3월 4일에 한성에 도착하여 의금부에 투옥된 이순신은 3월 12일에 한 차례의 고문을 받았다.³³⁾ 같은 시기에 선조는 이순신에 대해 몇 가지의 죄상을 거론하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었다.³⁴⁾ 그 후 4월 1일에 옥에서 풀려나 도원수 권을 휘하에서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Ⅲ. 부산근해해전의 경과와 결과

1. 기문포 해전

이순신의 후임으로 제2대 통제사가 된 원균은 바로 이전 2월 10일경에 이순신이 지휘하여 부산포 앞에서 있었던 전투 상황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서 원균은 도훈도 김안세의 공초를 바탕으로 이순신이 탄 배가 적에게 빼앗길 뻔할 정도로 위험했으며 이번 부산의 거사는 왜적의 비웃음만 샀을 뿐 별로 이익이 없었다고 운운하면서 비난하였다.³⁵⁾

이러한 보고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이순신의 부산진공 작전이 유해무익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수군의 허실을 적에게 모두 알게

33) 『李忠武公全書』 권9, 李芬 撰, 「行錄」

34) 『宣祖實錄』 권86, 30년 3월 癸卯

35) 『宣祖實錄』 권86, 30년 3월 庚戌

하였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접전할 때 있었던 수령과 변장들의 패전한 곡절을 추핵, 계문하여 죄를 주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³⁶⁾

이 보고가 당시 조정의 이순신에 대한 인식과 이순신과 원군의 관계를 감안해 보더라도 이순신이 이끈 조선수군이 부산 앞 바다에서 진공작전 할 때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이러한 피해는 왜 발생했을까.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테면 부산포에서의 접전사건이 끝난 후 거제현령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배인종을 보내서 일본군에게 항거한 이유를 물어 오라고 지시하였다. 다시 말해 그전까지는 전투를 하지 않으려고 하더니 이번에는 항거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는데, 이 배인종을 일본군 진영에서 붙잡아 간 적이 있다.³⁷⁾ 이러한 사건을 추정해 볼 때 부산포에 정박했을 때 일본군들이 통제사 이순신이 승선한 기함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근거로 다른 전선보다도 이순신이 탄 배만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선조는 명나라 양포정사의 차관 甯國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대일본 공격전략을 논의하였다. 즉 일본의 대병이 나올 경우 명의 대군이 다 나와야 공격할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 군량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현재 2만 명 미만으로 추정되는 일본군을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명군과 조선군이 협력하여 공격하면 적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다.³⁸⁾

이에 대해 甯國胤은 이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수가 1만

36) 『宣祖實錄』 권86, 30년 3월 庚戌

37) 『宣祖實錄』 권86, 30년 3월 庚戌

38) 『宣祖實錄』 권86, 30년 3월 甲辰

명이었는데, 이번에 적선 2백여 척이 왔으므로 일본군의 숫자가 이미 2만 명이 넘는 사실을 들어 쉽게 공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의 대군이 조선에 왔을 때 일본군이 잠시 물러갔다가 명군이 철수한 후에 다시 쳐들어 올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문제는 糧餉의 공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³⁹⁾

즉 명군의 입장은 일본군이 장기 주둔하여 屯田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명군도 조선에서 장기 주둔하여 활동하기 위하여서는 둔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선에서 둔전을 허용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유성룡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함은 물론 올해는 이미 農時가 박두하였으므로 금년의 둔전은 하기 어려우니 우선은 적이 다 건너오기 전에 서둘러 공격하고 둔전에 대한 일은 사세를 보아가면서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 하였다.⁴⁰⁾

이렇게 볼 때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는 양항의 공급이 어려운 시기에 명군의 대규모 참전이 불가능한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최선의 방책은 일본군의 추가 도해를 차단하는 한편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 일본군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공격하여 섬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세력은 조선수군 뿐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순신을 대신하여 통제사로 부임한 원균에 대한 기대심리는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수군은 통제사 원균이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 상황은 전라우수사 이억기가 도원수 권을

39) 『宣祖實錄』 권86, 30년 3월 甲辰

40) 『宣祖實錄』 권86, 30년 3월 乙巳

에게 장계를 올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해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월 8일에 왜선 대·중·소선 3척이 거제 器問浦⁴¹⁾에 와서 정박, 상륙하였다는 정보가 통제사 등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통제사 원균은 휘하 수군들을 거느리고 발선하여 밤새워 기동을 하여 9일 이른 아침에 기문포에 도착하였다. 그때 왜선 3척이 해안에 매여 있었고⁴²⁾ 일본 군사들은 모두 상륙하여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언덕 위에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통제사 원균은 항왜 南汝文 등을 보내어 이들을 회유하자 20여 명의 일본군사들이 나왔고, 南汝文이 일본군사들의 우두머리와 대화를 한 후 일본군 전체 80여 명이 모두 나왔다. 이들에 대해 안골포 만호 우수, 고성 현령 조용도, 거제현령 안위 등이 올라가 항복을 받았고, 그 중 우두머리 되는 자가 통제사가 탄 배위에 올라왔는데, 통제사는 이들에게 떠나도 좋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군들은 끌고 온 배에 나누어 타고는 바다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때 일본군들이 뜻을 달려고 하는 즈음에 통제사의 지시에 의해 기함에서 먼저 지자총통을 쏘았고 이후 공격신호가 내려졌

41) 거제도 기문포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다만 경상감사 이용순이 올린 서장에 고성현령 조용도가 점진한 장소를 조라포 경계 고다포라고 하였음을 통해 볼 때 기문포는 옥포의 북쪽에 있는 조라포 근처로 알 수 있다(『宣祖實錄』 권86, 30년 3월 戊申). 그리고 경상우병사 김응서의 서장에도 ‘옥포지경’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宣祖實錄』 권86, 30년 3월 乙卯) 기문포는 옥포와 가까운 북쪽 해안지점으로 볼 수 있다.

42) 3척의 배는 각각 김해, 안골포, 부산(小西行長 휘하 오도 소속)의 배라고 小西行長의 서계에 밝히고 있다(『宣祖實錄』 권87, 30년 4월 己卯).

다. 그러자 모든 배들이 앞을 다투어 공격하였다. 이때 고성현령 조응도가 탄 배가 가장 먼저 적선에 가까이 돌입하자 일본군 20여 명이 조응도의 배 위에 올라와 백병전을 벌였다. 그 결과 조응도와 사부·격군 등 많은 조선수군들이 부상을 입었고 물에 떨어져 내렸다. 이때 물에 떨어진 조응도를 비롯한 조선수군들을 우수가 탄 배가 구하였는데, 조응도는 잠시 후 사망하였다.

조응도가 지휘한 고성 소속의 전선을 탈취한 일본군들은 노를 저어 북쪽으로 달아났는데, 이를 조선의 전선들이 포위하여 지자·현자총통과 화살을 쏘아 일본군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때 임치첨사 홍견, 홍덕현감 이용제로 하여금 唐火箭과 松炬 등으로 적선에 불을 지르도록 하자 일본군들이 모두 배에서 뛰어 내려 육지를 향해 헤엄칠 때 사살하고서 그 중 18급의 목을 취하게 되었다.⁴³⁾

이 전투는 참으로 영성하기 짝이 없을 정도의 전투였지만 다음 자료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승리한 것으로 평가되어 보고되었고, 조정에서도 공로자에게 포상하도록 조치하였다.

비망기로 우승지 정광적에게 전교하였다.

“통제사 원균이 임명을 받자마자 곧 무용을 떨쳐 적선 3척을 포획하고 수급 47급을 바쳤으니 매우 가상하다. 원균과 공이 있는 사람을 즉시 논상하고 혹 관원을 보내 호군하여 장사들을 격려할 일을 의계하라. 그리고 적의 수급과 계본을 가지고 온 사람도 아울러 참작하여 논상할 것으로 비변사에 말하라.”⁴⁴⁾

43) 『宣祖實錄』 권86, 30년 3월 甲寅

44) 『宣祖實錄』 권86, 30년 3월 乙卯

이와 같이 비록 소규모의 전투였지만 조정에서 크게 기대하고 있던 승전보를 원군이 가져다줌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영향으로 일본군들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를테면 같은 시기에 경상우병사 김응서가 올린 서장에는 일본 측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다. 즉, 이들은 거제도에 땔나무를 구하러 왔다가 모두 살해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일본 측에서는 김응서에게 사자를 보내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수군이 일본군들을 함부로 공격하여 죽이면 일본군도 연해 지방의 조선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는 小西行長이 추진하고 있는 강화계획에 차질을 주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김응서는 강경하게 대응하였다.⁴⁵⁾

이러한 시점에서 비변사에서는 유정이 倭僧들과 만나서 알아온 정보 중에 1597년 5월경에 일본군의 대규모 세력이 바다를 건널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을 먼저 공격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즉, 명군이 기회를 놓치고 적을 토벌하지 않은 채 設陣·練兵·屯田·築城의 일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제때에 몰아쳐 섬멸할 것을 명나라 측에 요청할 것을 건의하였다.⁴⁶⁾ 명나라 역시 비로소 敵情을 알고 京師에 계엄까지 내리는 등 조선을 구원하는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⁴⁷⁾

한편으로 당시 조정에서는 加藤清正의 배 5백여 척이 울산 해구에 정박한 채 움직이지 않는 이유로는 군량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추수를 하고 나면 반드시

45) 『宣祖實錄』 권86, 30년 3월 乙卯

46) 『宣祖實錄』 권87, 30년 4월 壬申

47) 『宣祖實錄』 권87, 30년 4월 癸酉

움직일 것이며 7~8월 사이에 움직일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산지역의 일본군을 공격하는 작전의 당위성은 다음의 유정이 올린 상소 내용 중에 함축되어 있다.

지금 군량이 떨어지기 전에 남하하여 적을 몰아치면서 한편으로는 수군으로 원병의 길을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육로로 덮쳐 곧바로 소굴을 쳐부순다면 신도 다소의 의병을 이끌고 팔뚝을 걷어붙이고 칼날을 무릅쓰면서 한 번 치열한 싸움을 벌임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보답할 것을 기약하겠습니다. 이번의 기회를 놓치고 도모하지 않은 채 두어 달 지연시켰다가 적의 대군이 바다를 건너와 몇 보를 진군하게 되면 토봉와해의 형세가 목전에 와 닿게 될 것입니다.⁴⁸⁾

이러한 유정의 건의는 당시 조선 조정의 대일본공격 전략의 핵심 부분이었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 없는 형편이었다. 첫번째는 명나라와 일본 간의 강화회담 중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명나라에서 공격을 하지 말 것을 주문한 상태였다. 두번째는 부산 쪽에 위치한 일본군을 수륙으로 합공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병력만으로 부족하였으므로 명나라로부터 충분한 원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다만 조선의 수군이 자체적으로 일본군을 몰아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다. 이를테면 서생포의 일본군을 치기 위해서는 조선의 수군이 부산 쪽으로 왕래해야 하는데 안골포와 가덕도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방해받고 있었다.

48) 『宣祖實錄』 권87, 30년 4월 癸酉

2. 안골포 · 가덕도 해전

이러한 시점에서 명의 유격 沈惟敬이 차관을 보내어 이전에 일어난 기문포해전을 빗대어 사소한 참획은 승패의 숫자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므로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이 사방으로 흩어져 노략질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공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전달하여 왔다. 그리고 명나라 원군이 곧 도착할 계획이니 아직은 싸우지 말고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명나라 장수의 뜻은 오래 버티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말한 것인데, 만약 이 뜻을 범연히 알렸다가는 제장들이 이를 핑계 삼아 기회를 잃어버릴 염려가 있으므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건의하여 선조의 재가를 받았다.⁴⁹⁾ 다시 말해 이것은 곧 현지에서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일본군을 공격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제사 원균은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한 수륙합공책을 조정에 건의하였다. 원균이 인식한 당시의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의 정세는 일본군이 가덕도, 안골포, 죽도, 부산에 주둔하여 성세는 의지되나 그 수가 수만에 불과하며, 특히 안골포와 가덕도의 적은 3~4천 정도이므로 형세가 매우 고단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현재 30만 명의 병력동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들 육군이 안골포의 적을 공격한다면 수군이 이들을 공격하기는 매우 쉬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렇게 하여 적을 몰아낸 후 조선수군이 장문포 등에 진을 쳐서 날마다 다대포 ·

49) 『宣祖實錄』 권87, 30년 4월 戊寅

서평포·부산포에서 병위를 드날리면 회복의 계책이 거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지금은 늦봄인 데다가 날씨가 가물어서 땅이 단단하니 기병으로 작전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4~5월 사이에 수륙양군을 대대적으로 출동시켜 한번 승부를 겨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⁰⁾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자는 뜻은 훌륭하지만 완벽한 계책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안골포는 육지와 이어져서 육군이 진격할 수 있겠지만, 가덕도는 바다에 있어 수군이 아니면 진격이 불가능한 점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30만의 정병은 4~5월 내에 소집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조정에서 통제할 성격이 아니라 도체찰사와 도원수가 형세를 봐서 처치할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선조는 원군의 계책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시험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⁵¹⁾ 이에 대해 도원수 권율은 비록 안골포와 가덕도의 적세가 고단한 것은 원군이 말한 바와 같으나 선불리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하면서 수륙합공책을 반대하였다.⁵²⁾

도원수 권율의 장계를 토대로 비변사에서는 수군 단독의 작전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이를테면 당시 조선수군의 관옥선은 모두 180여 척⁵³⁾이고 이 외에 군의 형세를 도울만한 병선이

50) 『宣祖實錄』 권87, 30년 4월 己卯

51) 『宣祖實錄』 권87, 30년 4월 壬午

52) 『宣祖實錄』 권88, 30년 5월 戊戌

53) 도원수 권율의 장계에 의하면 한산도에 도착한 배는 134척이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배가 5~6척이며 따로 건조 중인 것으로 20일 사이에 건조가 끝나는 배가 48척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다 합하면 187~188척이다(『宣祖實錄』 권88, 30년 5월 壬寅).

더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수군세력이 대강 모아졌으므로 통제사 원균으로 하여금 거제도의 옥포 등지에 함대를 진주시켜서 부산과 대마도의 바닷길을 살피게 해서 중로를 막아 끊는 계책을 세워야 할 것을 건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군을 삼등분해서 절영도 앞 바다를 번갈아 오가며 뒤따라 온 배가 이어가고 앞에 있던 배가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수군의 왕래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적의 형세는 선두와 후미가 단절되어 조선수군에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선조는 이론은 맞지만 체찰사의 재량대로 할 수 있도록 지시는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⁵⁴⁾

한편 이 시기 도체찰사 이원익은 일본군의 정세에 관해서 보고하였다. 5월 12일에 보고된 이원익의 보고서에 의하면 4월 24일에 경상좌도 방어사 권응수의 정탐꾼을 통해 일본군이 “조선이 만일 강화하지 않으면 일본이 큰 위세와 많은 군사로 올 6~7월 사이에 바다를 건너와 우선 전라도를 약탈하고 마음껏 분탕질을 하겠다.”는 말들이었다고 보고하였다.⁵⁵⁾ 이원익은 이 정보가 매우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에 보고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조는 명나라 부총병 楊元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명의 수병 파견을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군이 나오게 되면 군량 운송도 용이할 것임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양원은 수병이 긴요한 까닭에 군문 孫鑛이 이미 군사 만여 명을 선발해 두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 명의 대군이 넘어오기 전에 우선 육지 방어는 吳惟忠이 조령을 지키고, 楊元 자신

54) 『宣祖實錄』 권88, 30년 5월 壬寅

55) 『宣祖實錄』 권88, 30년 5월 壬寅

은 남원을 지킬 계획임을 전달하였다.⁵⁶⁾

이어서 선조는 대신과 비변사 유사당상을 인견한 자리에서 수군의 효율적인 운용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성룡은 수군이 거제도 옥포에 전진하여 가덕도 외양을 통하여 부산 앞 바다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안골포와 죽도에 응거하고 있는 일본군의 위협을 받지 않고 부산으로 진출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항복은 현지 수군장수들은 외양에 배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자 유성룡은 수로로 부산과의 거리는 1식경에 불과하므로 50척의 배로 번갈아 드나드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선조는 기회를 보아 거사할 것을 주문하였다.⁵⁷⁾

이러한 시점에서 5월 12일에 경상우병사 김응서는 要時羅를 만나 일본군의 침략계획에 대해 듣고는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김응서가 要時羅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일본의 군사 15만 명이 7월 보름 경에 선봉부대가 출발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아울러 조선 진출 후의 작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豊臣秀吉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지금은 군량을 계속하기 어려우니 깊숙이 침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라도를 분탕질한 뒤에는 곧바로 군사를 되돌려 鎭江으로부터 迎日에 이르는 연해에 주둔하고서 조선에게 화평조약을 맺을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물으며 우선 말들을 쉬게 하라. 그리하여 여러 해가 지나 오래되었는데도 조선이 만일 또 화평을 맺으려 하지 않거든 때때로 나가 조선의 군대와 백성들이 모여 있고

56) 『宣祖實錄』 권88, 30년 5월 癸卯

57) 『宣祖實錄』 권88, 30년 5월 乙巳

물자가 富饒한 지역을 소탕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군마는 수고롭지 않고도 조선의 군민이 저절로 소진될 것이다.⁵⁸⁾

이러한 일본군의 작전계획을 통해 볼 때 군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전라도를 점령한 후에는 남부 지역에 주둔하면서 소모전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본군의 전라도 진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일본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도원수 권율이 적정을 입수하여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일본군이 가장 걱정하는 바는 조선의 청야작전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아주 궁벽한 지역에서 성과를 튼튼하게 마련하고 식량을 쌓아두고 청야작전으로 막아낸다면 들에는 노략질 할 것이 없고 뒤로는 계속되는 군량이 없게 되어 격파하기 어렵다⁵⁹⁾는 것이었다. 이것은 부산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이 전라도로 진격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고민거리였다. 아울러 한산도에 주둔하고 있는 조선수군도 큰 장애물로 판단했을 것이다.

한편 이 시기 명나라의 원병이 속속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도착하고 있었다. 이미 입국해 있던 楊元의 병력 외에 조령을 지킬 총병 吳惟忠의 약 4천 명의 병력이 5월 16일에 압록강을 건넜고, 제독 麻貴도 같은 날짜에 7천의 병마를 거느리고 요동으로부터 출발하여 5월 22일경에는 압록강을 건널 예정이며, 군문 邢玠도 근일에 요동으로 이주하였다는 평안감사의 동향보고가 있었다.⁶⁰⁾ 이런 형편에서 조정에서 논의한 것은 만여 명의 중국

58) 『宣祖實錄』 권88, 30년 5월 戊申

59) 『宣祖實錄』 권88, 30년 5월 戊申

60) 『宣祖實錄』 권88, 30년 5월 戊午

군을 지공할 군량미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지금 만일 오랫동안 지구전을 벌여 적과 교전하지 않고 있다 가 하루아침에 군량이 떨어지면 조명군은 무너질 것이 분명하다는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었다.⁶¹⁾

이와 같이 명나라 군사가 도착하고 있고 군량미는 부족한 실정에서 비변사에서는 명군을 활용하여 적을 물리치기 위한 대책을 선조에게 건의하였다. 즉, 울산과 양산의 지경에는 응거할 만한 요해지가 많으니 제장들로 하여금 이곳에 진주케 하고 수륙 양면으로 공격하면 적의 형세가 저절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선조는 해볼 만하기는 하나 명나라 장수와 의논한 후에 해야 함을 주지시켰다.⁶²⁾ 그러면서 선조 자신도 명의 총병 吳惟忠이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 험고한 곳을 점거하여 이길 수 있는 형세를 만든 뒤에 명나라 군사로 하여금 적진을 요동케 하고 수군으로 하여금 적의 식량보급로를 끊게 하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개진하였다.⁶³⁾ 다시 말해 명군의 주둔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고, 일본군에 대한 공격은 추후의 일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도체찰사 이원익이 수륙양군의 전투계획을 보고하였다. 그 대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테면 경상좌우도와 중도의 세 곳의 변진에서 각기 정예 군사를 뽑아 수군을 이용하여 전진 배치시켜 밖으로 나오는 일본군을 차단하는 작전을 수립한 것이다. 아울러 수군도 이등분하여 반은 한산도에 주

61) 『宣祖實錄』 권88, 30년 5월 己未

62) 『宣祖實錄』 권89, 30년 6월 庚申

63) 『宣祖實錄』 권89, 30년 6월 辛酉

둔하고 받은 물운대 등처의 해양에 출몰하게 하도록 종사관 남이공을 시켜 실시하도록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육군의 전진배치는 매우 힘든 면이 있으니 형세를 보아가며 처리하고 대신에 수군의 해로를 차단하는 일은 이전부터 강조한 것이므로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⁶⁴⁾

이 지시를 받은 통제사 원균은 수군이 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안골포의 적을 먼저 공격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이제 거제의 적은 안골포로 들어가 점거하고 김해의 적은 죽도로 들어가 점거하여 목을 막고 정치하여 서로 성세를 의지하면서 우리나라의 뱃길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앞 바다로 나아가 적의 무리를 차단하여 공격할 방도가 다시 없게 되었는데, 설사 대거 이를 수 있다 하더라도 나아가서는 배를 머무를 곳이 없고, 물러나서는 뒤를 돌아다 봐야 할 근심이 있으니 실로 병가의 승산이 아닙니다. 신의 계책으로는 반드시 수륙으로 병진하여 안골포의 적을 도모한 연후에야 차단할 방도가 생겨 회복하는 형세를 십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조정에서도 방도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으나, 신이 변방에 있으면서 적을 헤아려 보건대 금일의 계책은 이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조정으로 하여금 각별히 처치하여 속히 지휘하게 하소서.⁶⁵⁾

이와 같이 원균이 제시한 계획은 수군이 부산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중간 기항지가 필요한데 이곳을 일본군이 점거한 상태

64) 『宣祖實錄』 권89, 30년 6월 己巳

65) 『宣祖實錄』 권89, 30년 6월 庚午

에서 무리하게 출전했다가는 피해를 입을 것이므로 안골포의 일본군을 육군이 먼저 몰아내어야만 수군의 작전이 가능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도원수 권율이 그전부터 안골포의 적을 육지에서 몰아내기 힘들다고 한 점을 이해하면서 반면에 원군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하였다. 이를테면 원군은 도체찰사와 도원수의 절제를 받아 행동해야 함에도 자꾸만 조정에게 건의하는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선조의 재가를 얻어 도체찰사와 도원수가 현장에서 처리할 것을 주문하였다.⁶⁶⁾

아울러 당시 비변사에서는 일본군의 대규모 도발은 명백하게 예견된다는 입장에서 수군의 운용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이미 강상에 모인 수군병력이 장계에 의하면 벌써 2만여 명이나 되니 병력은 충분합니다. 부대를 나눠 교대로 나가 부산 앞 바다를 왕래하면서 적으로 하여금 겁을 먹고 감히 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계책입니다. 만약 시일을 지체하면 허다한 군사들이 양식이 다하여 또 흩어져 버릴테니 다시 거병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을 선전관을 보내 도체찰사와 도원수에게 하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제장을 신칙하게 하는 동시에 근일의 적정을 살펴 치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⁶⁷⁾

위의 비변사의 계책이 선조의 재가를 얻지 못했지만 당시 조선정정이 갖고 있는 수군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렇지만 수군의 세력을 분산하여 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조의 입장과는 배

66) 『宣祖實錄』 권89, 30년 6월 庚午

67) 『宣祖實錄』 권89, 30년 6월 癸酉

치되었다. 이것은 전선척수가 일본보다 열세인 조선수군으로서
는 취하기 어려운 과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군의 본격적인 도발에 관한 정보들이 6
월초를 전후하여 경상우병사 김응서와 도원수 권율을 통해 속속
보고되었다. 그 주요내용들을 요약하면 일본이 50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그중 30만의 병력을 조선에 도해시켜 전라도와 제주도
를 유린함은 물론 의령·경주의 산성을 攻破하겠다는 것이며,
그 시기는 6~7월 사이라는 것이었다.⁶⁸⁾

특히 경상우병사가 要時羅를 통해 접수한 보고서에는 豊臣秀
吉의 조선 재침략계획이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관백 豊臣秀吉이 휘하 제장들에게 지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장을 모아놓고 관백이 약속하기를 ‘조선이 매번 이처럼 나
를 속이고 있으니 내가 분함을 참지 못하겠다. 조선이 내말을
듣지 않는 것은 전라·충청 두 도가 아직 온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8월1일에 곧바로 전라도 등지로 들어가 곡식을 베어 군
량을 삼고 산성을 격파할 것이며 보장할만한 형세가 있거든 두
도에 유둔하면서 이어 제주도를 치라. 만약 불가하거든 군사를
돌려 고성에서 서생포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이어 둔을 치고서
조선에서 강화를 애걸할 때까지 대기하라. 행장은 고성, 의지는
거제, 죽도의 왜는 창원과 죽도와 부산, 다른 왜장은 기장, 안골
포의 왜는 가덕도, 가덕도의 왜와 청정은 서생포, 이런 식으로
8개 지역에 나누어 둔거하고 그 나머지는 다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 조선이 끝내 강화를 애걸하지 않으면 가까운 곳이나

68) 『宣祖實錄』 권89, 30년 6월 癸酉

5~6일 거리 되는 지역을 수시로 침략하여 기필코 강화하도록 하라. 산성이 있는 곳이면 비록 다 죽더라도 공격해 깨트려야 하니, 너희는 죽을 힘을 다하라. 만약 내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처자를 모두 죽이겠다.’고 하였다.⁶⁹⁾

위의 豊臣秀吉의 지시에 대해 휘하참모들이 조선수군의 능력을 무시할 수 없고 명나라 군사가 대거 들어와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러자 豊臣秀吉은 ‘전라도 · 경상도 · 충청도 등을 짓밟으면 수군의 형세도 저절로 무너질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조선의 군마가 조금 강해졌다 해도 말할 것이 못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계사년에도 중국의 대군이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진주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고 하면서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정보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일본군의 재침입이 도래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조정의 부산 앞바다 진공작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도체찰사와 도원수의 지시를 통제사 원균이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⁷⁰⁾ 이러한 현지에서의 불협화음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매우 우려하면서 동시에 당시의 해상상태가 남풍이 불어 적이 침입하기 좋은 조건임도 우려하였다. 더욱이 당시 대마도에는 왜선이 부지기수로 도착하여 도해의 호기를 엿보고 있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비변사에서는 현실적인 수군 운용대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고 선조는 동의를 하였다.

69) 『宣祖實錄』 권89, 30년 6월 癸酉

70) 『宣祖實錄』 권89, 30년 6월 乙酉

현재의 선박을 합쳐 몇개 부대로 나누되 배설은 경상우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고, 이역기는 전라우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며, 최호는 충청도의 배로 일개부대를 만들고, 원균은 그가 거느린 선박으로 일개 부대를 만듦으로써 한산도를 굳게 지켜 근본을 삼고 부대별로 교대로 해상에 나가 서로 관측하게 해야 합니다. (중략) 그리고 별도로 옥포와 조라포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에 疑兵을 설치해 형세를 벌이면 적선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수군이 크게 모였다고 여길 것이고, 또 중국군이 함께 세력을 돕고 있는가 의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적은 뒤를 돌아보는 걱정이 있게 되고 뒤이어 오는 자는 요격당할까 염려할 것이니, 軍機에 관계된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⁷¹⁾

이와 같이 조정에서 수군운용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즈음인 6월 18일에 통제사 원균은 수군을 이끌고 드디어 가덕도 방면으로 출전을 하였다. 그러나 원균이 출전하게 된 것은 자발적인 의지에서가 아니라 도원수의 계속적인 독촉과 도체찰사의 명령을 전달한 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이공의 역할에 기인한 바가 컸다.⁷²⁾

조선수군은 6월 18일에 한산도에서 발선하여 날이 저물자 장문포에서 밤을 보냈다. 조선수군은 이튿날인 6월 19일 아침 일찍이 학익진을 형성하여 안골포로 진격하였다. 그때 일본군들은 줄 지어 서서 해안에 잠복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암석 사이에 기계를 설치하고 있었다. 이에 조선수군의 제장들이 전진했는데, 일본군도 배를 타고 싸움을 걸어와 서로 응전하였다. 포탄과 화

71) 『宣祖實錄』 권89, 30년 6월 乙酉

72) 『宣祖實錄』 권89, 30년 6월 丁亥

살이 함께 쏟아져 해안이 진동하는 가운데 조선수군들은 퇴진함이 없이 전투에 임했다. 결국 일본군 다수가 살상됨으로써 일본군은 배를 버리고 해안 위로 도망쳤다. 이에 조선수군은 적선 2척을 노획하였다.

이어서 공격대상을 가덕도로 향했는데 가덕도의 적은 이미 안골포에서 내원하다가 배를 타고 그들의 소굴로 들어갔다. 조선수군들이 급히 배를 저어 추격하여 거의 모든 적선을 포착하기에 이르자 적들은 마침내 배를 버리고 작은 섬으로 숨어들어갔다. 제장들이 포위하고 난사하였으나 그들 배만 빼앗았고 섬 안으로 들어가 찾아보았지만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수군이 포기하고 돌아오는 즈음에 안골포의 일본군들이 또 배를 타고 역습해 왔으므로 조선수군은 다시 돌아서 접전하였다. 적들이 조총을 난사하자 조선수군도 방패에 의지하여 화살을 다발로 쏘아대며 점차 유인해 나오다 날이 저물자 파하고 돌아왔다.

이 해전에서 조선수군의 피해를 보면 평산만호 김축이 눈 아래 탄환을 맞는 부상을 당했고, 그 밖의 하졸들은 하나도 중상을 입지 않았는데, 보성군수 안홍국이 끝내 이마에 철환을 맞아 뇌를 관통하여 그 자리에서 전사하였다.⁷³⁾ 그러나 이 해전에서 조선수군은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1명의 장수가 전사했지만 적선 다수를 노획했을 뿐만 아니라 아군의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전과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안골포·가덕도 해전이라고 부른다.

한편 원군은 그날 하루 종일 접전 후 바로 한산도로 귀환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안골포의 적 전력의 강하지 않음

73) 『宣祖實錄』 권89, 30년 6월 戊子

므로 계속 공격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원균은 이러한 지시를 묵살한 채 출전을 회피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조는 향후 출전할 때도 후퇴하여 적을 놓아준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강하게 질책하였다.⁷⁴⁾

한산도로 귀환한 조선수군은 다시 출전하라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7월 4일에 출전을 단행하였다. 이때 통제사 원균은 명에 불복하여 출전하지 않고 경상우수사가 주축이 된 가운데 휘하 수사들이 연합하여 부산으로 출전하였다. 그리하여 7월 5일에 칠천도에서 정박하고 7월 6일에 옥포에 들어갔다가 7월 7일 새벽에 발선하여 말곶을 거쳐 밤에 다대포에 이르렀다. 이때 다대포에는 적선 8척이 정박해 있었는데 일본군들은 모두 육지로 도주하고 빈 배만 남았다. 조선수군은 7월 8일에 빈 적선 8척을 분멸시키고⁷⁵⁾ 그 길로 부산 절영도 바깥 바다로 향하였다. 마침 적선 1천여 척이 대마도에서 건너와 전투를 하려했으나 일본함대는 흩어지면서 전투를 회피하였다. 이때 조선 수군 중 심한 파도와 조류에 휩쓸린 전선 7척이 서생포에 표류하여 대부분 일본군에게 살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⁷⁶⁾ 이 해전을 절영도 외양해전이라고 부른다.

이 해전에서의 피해는 기록마다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이순신이 백의종군 중이던 정유년 7월 14일에 종사관 황여일을 통해 보내 온 김해인 김억의 고목에 의하면 7월 9일에 왜선 천척과 절영도 앞바다에서 싸웠는데, 조선 전선 12척이 피해를 보았

74) 『宣祖實錄』 권90, 30년 7월 己亥

75) 당시 도체찰사 이원익의 보고에 의하면 적선 10여 척을 포획하였다고 하였음 (『宣祖實錄』 권90, 30년 7월 癸卯).

76) 『亂中日記』 정유년 7월 16일 己巳

다고 하였다.⁷⁷⁾ 한편으로 7월 15일에 中軍 이덕필이 이순신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조선수군 20여 척이 적에 패했다고 하였다.⁷⁸⁾

이상에서 살펴본 부산근해 해전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 부산근해해전의 결과

교전일자	교전장소	참전세력		전과	피해
		조선	일본		
1597.3.9	기문포	수십여척 (추정)	3	3척 나포 (수급 47)	조용도 사망, 수군 다수 사망
1597.6.19	안골포, 가덕도	100여척 (추정)	수십척	수(십)척 나포	사망1명, 부상 1명
1597.7.8~9	다대포, 절영도 외양	100여척 (추정)	500~1000 척	8척 분멸	12(20)척 파손

이와 같이 부산으로 도해해오는 일본군을 차단하기 위해 조선 수군이 수차례 출전하였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것은 적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이 맹신한 조정의 경솔함과 조정과 수군지휘부간의 명령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었고, 해전의 개념에 대하여 조정의 인식이 현장에서 생각하는 수군 지휘관들 간에 차이점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부산 앞 바다의 자연적 환경이 전근대시기 군선의 활동을 제약하는 면이 강했다. 그리하여 급기야 이 해전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칠천량해전에서 조선수군이 대패하는 배경이 되고 말았다.

77) 『亂中日記』 정유년 7월 14일 己巳

78) 『亂中日記』 정유년 7월 15일 己巳

IV. 부산근해 해전의 의미와 영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유재란 초기 조선조정의 수군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부산근해 해전은 정유재란 초기의 전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일본군의 첩자 要時羅를 통해 알려진 일본군의 정세를 맹신한 가운데 수군 지휘관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고 조정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결국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볼 때 부산근해 해전은 결국 정유재란의 전황을 조선군에 불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해전들이 패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칠천량해전의 패전에 서막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산근해 해전의 의미를 크게 敵情 수용 및 활용, 지휘권 확립문제, 적절한 전략전술의 구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부산근해 해전의 결과는 이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먼저 적정의 수용 및 활용 면에서 살펴보자. 기존 연구에서 칠천량 해전의 패전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의 반간계를 여과 없이 수용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要時羅는 小西行長과 加藤清正간의 갈등상황과 加藤清正의 도해에 대한 정보를 흘리면서 이순신의 파직을 유도하는 계기적 사건을 만들었다.⁷⁹⁾ 결국 이순신은 이 정보를 토대로 한

79)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癸巳

조정지시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파직되고 말았다.

이 사건에 대해 일본 측 연구는 대략적으로 보아 小西行長과 宗義智 두 사람의 이간책이 성공하여 이순신 제거에 성공하였다고 보고 있다.⁸⁰⁾ 우리나라 기록에서도 일본의 간계에 속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정남은 『亂中雜錄』을 통해 要時羅의 속이는 일을 우리나라가 알지 못한 점이 가슴 아프다고 안타까워하였다.⁸¹⁾

일본 측의 반간계는 계속되었다. 예컨대 2월 10일의 부산진공작전 시에는 조선수군의 전선이 모두 참가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다. 이것은 곧 부산 앞바다의 자연적 환경이 당시의 전선들이 함부로 기동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부산 앞바다는 파도가 심해 전근대 시기 전선들이 함부로 항해하기가 곤란 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대마도에서 해상상태를 보아가며 조심스럽게 도해하곤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조선수군이 100여척의 전선을 모두 출전시킬 경우 해상상태에 따라 수십 척이 손실을 입을 수도 있었다.

이순신이 통제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일본군은 '3월 도해설' 또는 '5월 도해설'등으로 계속 조선수군의 부산진공을 유도하였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수군으로 하여금 부산 앞바다로 진격하기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통제사 원균은 수륙합공책을 제시하면서 출전을 기피하게 되어 조정과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계속하여 6월과 7월에도 일본군이 대규모로 도해할 것이라는 정보를 줌으로써 이에 말려든 조정은

80) 德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 己篇 「朝鮮役」 下卷, 1992, 449~455쪽.

81) 趙慶男, 『亂中雜錄』 3 정유년 2월 11일

더욱 조급한 심정에서 수군의 부산진공을 강요한 것이고 그 결과는 칠천량해전 패전으로 연결된 것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휘권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작전 지휘권은 도체찰사-도원수-통제사-수사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순신이 통제사 시절에도 지휘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597년 2월 10일을 전후한 시기에 도원수 권율과 경상우병사 김용서, 그리고 통제사 이순신이 함께 부산진공작전을 실행에 옮겼는데 이러한 작전 실행의 책임자인 도원수 권율은 도체찰사 이원익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통제사가 원균으로 교체된 이후에는 이러한 군령권 행사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면이 더욱 많이 노정되었다. 이것은 도원수 권율과 통제사 원균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노정되었기 때문인데 주로 부산진공작전의 방법에 관한 시각차이 문제로 벌어진 것이었다. 이를테면 통제사 원균의 입장에서는 수군이 부산으로 진공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육지에 있는 일본군을 조선 육군이 몰아내 주기를 바라는 소위 수륙합공책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권율은 육군의 전력과 작전환경이 좋지 못하여 일본군을 공격하기 어려우므로 수군 단독으로 부산앞바다로 진출하기를 원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커짐에 따라 두 사람의 지휘관을 조정 통제하기 위해서는 도체찰사 이원익이 1차적인 책임자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원익은 권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 같다. 이는 전투를 총괄 지휘하는 도원수라는 직책과 전시 제반 행정을 담당하는 도체찰사라는 직책의 기능상의 차이를 상호 자

의적으로 해석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아진다. 어쨌든 이러다보니 권율은 지휘를 받들지 않는 원균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조정에 보고하였고, 원균 역시 권율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조정에 직보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결국 조정의 지시에 의해 도체찰사 이원익의 종사관 남이공을 수군진영에 파견하기까지 이른 것이었다.

아울러 원균은 휘하 지휘관들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를테면 임진왜란 종전 후 이덕형이 ‘이 때까지 이순신의 휘하에 있던 제장이 원균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통제사가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부체찰사 한효순이 이 문제를 체찰사에게 보고하여 해결하려 했지만 미처 조처를 취하기 전에 칠천량해전이 벌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⁸²⁾

이와 같은 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일련의 불협화음들은 결국 조선수군이 부산근해에 강제에 의해 출동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선수군의 행동결정 배경에는 이러한 지휘권이 확립되지 못한 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부산근해해전의 전술적 분석이다. 먼저 기문포해전을 살펴보자. 3월 9일에 있었던 이 해전을 분석해 보면 한마디로 영성하기 짝이 없을 뿐더러 이겼다고 해도 피해가 막심한 결과를 낳았다. 전술적인 면에서 볼 때 항왜를 시켜 일본군들을 유인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보겠으나, 적선을 공격할 때는 원거리에서 공격하여 적의 등선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것은 이전에 이순신이 주도한 해전들과 비교된다. 이를테면 이순신은 일본군의 전술이 登船白兵戰임을 알고서는 조선의 장점인

82) 『宣祖實錄』 권133, 34년 1월 丙辰

화포를 이용한 원거리 공격 후 적의 전의를 상실시킨 다음에 근접해서 분멸하는 전법을 구사하였다. 그런데 이번 전투를 분석해 볼 때 고성현령 조응도는 적선과 너무 근접하여 적의 등선을 허용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자신의 죽음은 물론 아까운 관옥선 한 척이 탈취당하여 아군의 총통에 의해 부수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도의적인 면에서 볼 때 아무리 적이라고 하지만 살려주기로 약속해 놓고 공격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당시 80여 명의 적을 조선수군이 둘러싸서 아예 사살을 하든지 포박해서 생포하는 편이 나았을 것으로 보아진다. 한마디로 전과에 급급하여 적의 수급을 취하려고 한 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전투였다.

두 번째로 안골포 · 가덕도 해전의 경우에는 기문포해전보다 훨씬 작전이 원활하게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전에서는 화포와 화살을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제대로 된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보성군수 안홍국이 적탄에 맞아 사망했지만 이는 개인의 불운에 의한 결과일 뿐이지 전술상의 미흡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두 명의 장수가 피해를 입은 것 외에는 부상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절영도 외양해전이다. 이 해전은 칠천량해전을 미리 볼 수 있는 해전이였다. 그만큼 부산근해가 전투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전달해 준 면이 많았다. 그런데 이 해전에서는 최고 지휘관인 원균이 참전하지 않은 가운데 휘하 수사들이 연합하여 부산 근해로 출동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

7월 8일에 다대포에서는 적선을 8척 분멸시킬 수 있었지만 다

음 날인 9일에는 파도가 심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다 보니 조류에 떠밀려 수군의 전선들이 표류하게 되었고 결국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당시 부산 앞바다의 자연적 환경을 고려하여 전술을 구사하여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무지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말았다.

V. 결 언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일본의 재침이 시작된 정유재란 초기 조선 조정에서는 수군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진 가운데 조선수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전쟁극복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조선조정의 수군 운용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의 해전들이 부산근해에서 이루어졌다. 부산근해 해전은 일본군이 부산으로 도해하기 전에 조선수군이 부산 앞바다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일본군의 도해를 차단하라는 조정의 지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였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일본군의 도해시기를 일본군 첩자로부터 듣고는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무조건적으로 진격을 지시함으로써 수군지휘관과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특히 정유년 1월에 要時羅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해 수군함대의 출전을 지시했지만 이순신은 출전하지 않았다. 일본군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순신의 출전거부로 놓치게 되었다고 판단한 조정에서는 이를 빌미로 몇 가지 죄상을 거론하면서 이순신을 통제사직에서 해임하고 원균을 통제사로 임명하였다.

원군이 통제사로 임명되었을 당시에는 부산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규모가 작고 제대로 축성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수군이 공격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원군으로 하여금 부산지역으로 출전하여 일본군을 공격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때 공격대상은 일본군 전체가 아니라 加藤清正군이었다.

이때는 강화회담이 결렬되었지만 일본군이 대규모로 침입해 오지 않고 선발대에 의한 거점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리하여 처음 다대포와 서평포에 있던 일본군이 점차 김해, 웅천, 안골포, 가덕도 등으로 거점을 넓혀가고 있던 중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군은 要時羅를 이용하여 계속 반간계를 꾸며나갔고 이에 말려든 조정에서는 원군으로 하여금 수군을 이끌고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군은 부산지역으로 원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거제도 부근의 일본군을 발견하고 이를 소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3월 9일에 있었던 기문포해전이다. 기문포 해전은 비록 승리했지만 전략전술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은 해전이었다. 그러나 이 해전에서의 승리는 조정에서 원군의 충성심을 높게 평가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데 조선조정에서는 일본군의 추가 도해와 군량보급로를 끊는 것이 전선확대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고 조선수군이 계속적으로 함대를 부산 앞바다로 보내어 시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원군은 부산으로 출동하기 위해서는 육지에 있는 일본군이 위협이 되므로 이들을 조선육군이 몰아내 주면 조선수

군이 공격하여 섬멸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수륙합공책을 먼저 실시한 후 부산 앞바다로 진공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도원수 권율은 육군의 힘이 미약하여 실행할 수 없으므로 수군 단독의 작전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균은 수군단독으로는 일본군을 공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계속적인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도체찰사 이원익은 종사관 남이공을 보내어 수군의 출전을 독려하게 되었다.

결국 원균은 6월 18일에 출전하여 다음날에 안골포와 가덕도의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이것이 바로 안골포·가덕도 해전이다. 이 해전에서 조선수군은 비록 장수 1명이 전사했지만 일본군에 많은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정에서 기대한 바는 부산 앞바다로의 진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이 해전은 높게 평가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가덕도의 적을 물리친 후 잔여 일본군을 소탕하지 않고 바로 한산도로 귀환했기 때문에 원균은 선조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그 후 도원수 권율로부터 출전독촉을 받자 원균은 출전하지 않고 경상우수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들만이 출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7월 8~9일의 절영도 외양해전이다. 이 해전에서 조선수군은 다대포에서 적선 8척을 분멸시켰지만 10여 척의 전선이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이어서 벌어진 칠천량해전의 큰 패배로 연결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볼 때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부산근해 해전은 전황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칠천량해전 패배의 전초전이 되고 말았다. 이는 조선

조정의 적정에 대한 맹신과 그에 따른 무리한 지시, 도체찰사로 부터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휘권 확립에서의 불협화음, 그리고 수군 지휘관의 전략전술 구사가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다고 볼 수 있다.